

으로 그들을 그려 보임으로써 존경받아 마땅한 그들을 본
보기삼아 덕성을 고무한다네. 인류의 고통을 달래기 위해
지구로 내려온 하늘의 딸인 게야. 그들이 영감을 불어넣어
준 위대한 작가들은 어느 사회에서든 늘 견뎌내기 가장 힘
든 시기에, 야만과 타락의 시기에 나타났었네.

이보게, 문학은 자네보다 더 불행한 한없이 많은 사람들
을 위로해왔네. 그중에는 일만 명의 그리스인들을 조국으로
돌려보낸 뒤 정작 본인이 조국에서 추방당한
크세노폰[●]이며, 로마인들의 중상모략에 분통을 터뜨리던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며, 역시 로마인들의 음모에 시
달리던 루쿨루스^{●●●}, 궁정의 배반에 몸서리치던
카티나^{●●●●}도 있었지. 기발한 창의력을 가지고 있던 그
리스인들은 문학을 주재하는 뮤즈 한 명 한 명에게 지성의
일부를 나누어 주어 우리의 지성을 다스리도록 했음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뮤즈들이 우리의 정념에 굴레와 속박을
들씌울 수 있도록, 우리의 정념을 내맡겨 그것을 지배하게

● 루쿨루스(Lucullus, BC114-57)는 로마의 군인이자 정치가. 전쟁에는 능했으나 지나친 물욕으로 인해 부하들의 원성을 샀고, 결국 동방 원정에서 돌아와 폼페이우스에게 지휘권을 이양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은퇴한 그는 동방에서 가져온 재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했다.

● 니콜라 카타나(Nicolas Catinat, 1637-1712)는 군사령관이자 루이 14세 휘하의 프랑스 원수. 군인으로서 영예로운 업적을 쌓아 1693년 프랑스 원수 자리까지 오르지만, 1701년 카르비 전투에서 궁정의 명령과 방해에 시달리다 결국 사보이의 외젠 공작에게 패한다.

● ● ● ● ● 카타나시화에 등장하는 계절의 여신들로, 올림포의 여신 테미스와 제우스 사이에 열여덟 세 자매를 일컫는다. 호메로스는 호라이를 하늘의 문인 구름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봄꽃으로 꾸며주며, 태양신 헬리오스의 말을 수레에 태워주거나 끌어주는 여신들로 묘사한다. 한해 분야에서 쓰던 옛 길이 단위로, 1년(???)은 약 185~200m.